

〈연구발표〉

# 재미한인 간호원의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손 난 주  
(Lander 간호대학교수)

## 1. 서 론

미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한국인 간호원의 명확한 숫자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으나 수천명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 한인 간호원들이 직장에서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나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재미한인 간호원들의 직장에서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한인 간호원이라 함은 한국에서 간호교육을 수료한 간호원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간호원들을 말한다.

대다수의 간호원들은 미국의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이들 도시에 있는 병원 및 기타 보건기관에서 취업하고 있다.

본인은 1978년 2월 재미한인간호원 1백50명을 표본추출(random sample)해서 질문서를 송부하였다. 질문서의 내용은 미국간호잡지인 Nursing 78에서 미국 및 캐나다 간호원들의 직업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사용된 것을 그 잡지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으며 한인 간호원과 관계가 없는 것은 삭제하였고 한인 간호원에게 특히 관계가 있는 질문 내용을 첨가해서 모두 77항목의 질문내용을 가진 질문서였다. 질문서에 대한 응답율은 60%퍼센트였으며, 응답을 보낸 사람은 모두 여성이었다.

## 2. 재미한인 간호원의 실태

이들 한인 간호원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왔으며, 연령은 71%퍼센트가 30대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결혼하였고,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간호원 기본교육은 한국에서 받았고, 그 후 외국에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간호원들도 있었다. 간호교육을 학력별로 구분하면 3년제가 44%, 4년제가 42%였고, 석사학위 수료자가 14%였다.

대부분의 간호원은 2백베드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백베드이하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원들도 있었다. 간호학교에서 교수나 조교 또는 회사간호원으로 근무하는 간호원은 1%였다. 병원의 평간호원(staff nurse)으로 근무하는 간호원이 대부분이었고 그중 25%는 팀리더(team leader)로 근무하고 있었다. 수간호원보(assistant headnurse)로 일하는 이도 얼마간 있었다. 응답자의 반수이상인 낮번(day shift) 근무를 하였고, 36%는 저녁번(evening shift)이었다. 이들 간호원들이 일하고 있는 전문분야는 내외과 43%, 응급실·중환자실 8%, 노인학 10%, 응급처치 3%, 산부인과 10%, 소아과 8%, 정신과 0%, 교육 1%, 행정 0%, 기타 17%였다.

한인 간호원들의 미국에서의 근무경력 1년 내지 3년이 대부분이었고 4년 이상의 근무경력의 소유자도 상당수 있었다. 주당 40시간(fulltime)

일하는 간호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이 받는 봉급은 연봉 8천불에서 2만불(1978년 당시)을 받는 간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 3. 근무환경

한인 간호원들은 미국이라는 생활습성이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 간호원의 반수 이상이 직장 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information)를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한국 간호원으로부터 얻고 있었으며, 단지 30%만이 게시판의 공고나 미국인 간호원으로부터 얻는다고 했다. 도움이 필요할때 다른 한인 간호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서로 이국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고 대답한 간호원이 75%나 되었다. 한편 이들은 한인 간호원커디, 비공식조직(informal organization)을 형성하고 있었다.

미국인 간호원들과의 관계는 양호한 편이었다. 85%의 간호원들은 동료 미국인 간호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인 간호원들이 열심히 일하며 간호지식도 상당하다고 대부분이 응답했다. 그러나 미국인 간호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0%나 되었다. 같은 직장에 있는 다른 외국인 간호원들과의 관계도 양호한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취업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중에 언어장애가 문제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단지 38%만이 언어 장애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많은 간호원들이 한 직장에서 평간호원으로 수 년동안 근무했지만 승진의 전망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일부 간호원들은 미국인 간호원들과 친숙해지는 것이 꽤 어렵다고 했고 열심히 일하는 메도 상관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한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직장에서 별 문제없이 잘 근무하고 있다고 대답한 간호원들도 일부 있었다.

이와같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간호원의 반수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와서 취업하기로 결정한 것을 잘했다고 응답하고 일부는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별차이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극히 적은 수의 간호원은 미국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 4. 한인 간호원들의 직업의식

채미 한인 간호원들에게 간호직이란 전문직(Profession)이면서,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간호직이 가장 좋은 전문직이나 하는데는 많은 수가 회의적이었다. 약 30%만이 간호직을 경쟁직업으로 생각한다고 했고 다시 선택한다고 해도 다시 간호원이 되겠다고 했다. 3년제 수료자중 36%와 박사학위 수료자중 16%만이 간호직을 가장 좋은 전문직이라고 응답했다.

간호직무중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다음 표와 같이 표시하고 있다.

#### 가장 즐거운 간호직무

1. 동통완화 32.8%
2. 환자목욕 13.8%
3. 체위안위 13.8%
4. 피부간호 6.9%
5. 치료적마사지 5.2%
6. 기타 8.6%
7. 무응답 18.9%

#### 가장 싫어하는 간호직무

1. 기관절개시 이물질제거 20.7%
2. 실금환자간호 19.0%
3. 욕창간호 15.5%
4. 드레싱처치 12.1%
5. 대소변·담수거 6.9%
6. 스트마 간호 3.5%
7. 기타 8.6%
8. 무응답 13.7%

상당수의 간호원들은 간호직이 생계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직장을 구할 때 봉급액이 얼마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또한 봉급액이 직업만

족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봉급액이 직업만족도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41.4%, 중요하다가 56.9%의 응답율을 나타내는데 반해서 중요치 않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하였다. 약 반수의 간호원들이 그들의 봉급액수가 적절한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약 40%는 봉급이 적다고 지적하였다. 70%의 간호원들은 직장 때문에 가정 생활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불평을 표시한 간호원들이 있었다.

5. 직업 만족도

한인 간호원들이 직장에서의 직업만족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단히 만족하다. 13.8%
- 2. 중정도로 만족하다. 70.7%
- 3. 중정도로 불만족하다. 13.8%
- 4. 대단히 불만족하다. 1.7%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인간호원의 84%가 직업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각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원들의 직업 만족도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다.

전문분야 및 직업만족도

내외과 89.5%, 응급실, 중환자실 83.3%, 노인학 75.0%, 응급처치 66.7%, 산부인과 100.0%, 소아과 50.0%, 기타 78.6%

또한 직업만족과 관계가 있는 다음의 여러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그 사항들이 직업만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 또는 중요하다고 응답한 수는 다음과 같다.

(65페이지에서)

속하지 않았소.

나의 임무는 그때가 자유롭게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여 투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내가 그대에게 드릴수 있는 유일한 현실이란 도전이요.

건강하다는 것은 그때의 능력에 따라 이 도전을 선택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겠소.

나는 그대에게 거짓을 약속하지 않았소.

실상 완전한 세계, 강미꽃 정원이란 거짓이요, 실증나는 것이기에 말이요.

- 1. 봉급액 98%
- 2. 간호원수 대 업무량 비율 94%
- 3. 근무시간 또는 근무번(Shift) 93%
- 4. 직장 보장 93%
- 5. 직접환자간호 90%
- 6. 승진의 기회 86%

전술한 바와 같이 봉급액과 직업만족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력별로 본다면 3년제수로 간호원들은 대단히 또는 중정도로 만족하거나 중정도로 불만스럽다고 대답했는데 반해서 4년제와 그 이상의 학력수료자들은 대부분 중정도로 만족한다고 했다. 성취감(Sense of accomplishment)과 직업만족도라는 상관관계가 있다. 성취감을 수시로 경험하는 간호원은 대부분 중정도로 만족스럽다고 했고, 성취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간호원은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근무시간의 80%이상이나 20%이하로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원들은 비교적 불만족하다고 했으며 team spirit이 높다고 한 간호원들은 대부분 중정도로 만족을 표했다.

상관(immediate supervisor)들이 자기 의견이나 불평을 잘 들어 준다고 대답한 간호원들은 중정도의 만족을 표했다.

결 론

언어 및 생활풍습이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미 한인 간호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졌 제약된 범위내에서 자기들의 최선을 다하여 잘 적응해 나감으로써 대부분이 직업만족을 경험하고 있었다.

Look here Furri, I never promised you a rose garden.

I never promised you perfect justice, and. I never promised you peace or happiness.

My help is so that you can be free to fight for all these things.

The only reality I offer you is challenge, and being well is being free to accept it or not at whatever you are capable.

I never promised lies, and the rose garden world of perfection is a lie and a bore too.